



건강을 위한 중국 소비자의 선택, 유산균



최근 중국의 유산균 시장이 화제다. 유산균은 관련 학계 연구원들의 관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랑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 올해 6월 3일 커신식품 및 영양정보 교류센터(科信食品与营养信息交流中心)가 베이징에서 발표한 <중국 유산균 소비 인지 상황 보고(2020)>에 따르면 74%의 중국 소비자가 유산균이 몸에 유익한 미생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유산균 시장의 가치는 약 400억 유로(약 52.8조원)로 중국의 유산균 시장은 북미, 유럽의 발전 국가에 비해 10년 정도 뒤쳐진 편이라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유산균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매년 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22년의 시장 규모는 900억 위안(약 15.2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에서도 유산균의 건강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2018년 연말, 리안허리화(联合利华)에서는 최초로 유산균 아이스크림 브랜드 ‘Culture Republic’를 출시하였다. 올해는 라이펀(来伊份), 쓰즈송슈(三只松鼠), 치아치아(洽洽)에서도 유산균견과류 제품을 출시하여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쓰즈송슈(三只松鼠) 유산균 매일견과 상품

출처 : 바이두이미지



▲ 라이펀(来伊份)유산균 매일견과 제품

출처 :

① <https://news.21food.cn/35/2898553.html>

② <https://news.21food.cn/12/2898499.html>



▲ 란무 rose green your body 유산균 캡슐제품
출처 : 바이두이미지

하지만 중국은 유산균의 종류에 대해 엄격히 규정·관리하고 있다. 2010년 중국 위생부(卫生部办公厅)에서 <식품에 사용 가능한 균종 리스트(可用于食品的菌种名单)>를 발표하였는데, 이 규정에서는 식품에 사용 가능한 미생물을 총 10종류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도 영유아식품, 보건의약품 및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균종을 분류하였다. 현재 유산균 중에서 젖산균과 비피더스균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유산균이다.

유산균이 중국 시장에 진출 후 수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었지만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60%의 소비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산균 관련 제품들의 특징과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바로 해당 제품의 유산균이 인체에 유용한지의 여부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산균 제품은 유산균을 위장(胃腸)까지 전달하기 위하여 유산균에게 맞는 '겉옷'을 입힌다.

현재 흔히 보이는 유산균 포장 형태는 알약, 분말 및 캡슐이다. 알약형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식용이 간편하며 휴대하기 쉽다. 하지만 가공과정에서 고온으로 인하여 많은 유산균은 소멸되므로 알약형의 유산균 수요는 비교적으로 적은 편이다. 분말 형태의 유산균은 전체 양제의 형태 유산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식용과정에서 온수에 타 먹을 경우, 물의 온도가 적정치 못하면 유산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밀봉된 포장으로 산소와 유산균을 격리하여 유산균의 생존율을 상승시킨다. 캡슐형의 유산균은 위에 모든 장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산화, 항 담즙작용을 하고 유산균의 수명을 연장하며 유산균의 수량도 상승시킬 수 있다.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일반식품과 보건의약품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이 개념이 점점 동질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품의 개념 및 스토리 위주로 제품 제작하는 일반식품은 더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Faulding 유산균 캡슐제품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 유산균 관련 제품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는데 2018년 나이셰더차(奈雪的茶)는 '란빠오쥘(燃爆菌)' 시리즈의 차음료를 출시하여 모든 음료에 유산균을 함유시키고 있다.

<중국 유산균 소비 인지 상황 보고(2020)>에 따르면 유산균 보건의약품은 발효 유제품, 유산균 음료와 같이 중국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유산균 제품 TOP3로 선정되었다. 이로 인한 향후 유산균의 중국 시장 성장 전망이 기대된다.



▲ 나이셰더차(奈雪的茶)는 '란빠오쥘(燃爆菌)' 차음료
출처 : 바이두이미지

Key Point

현재 중국의 유산균 시장은 고속성장 중이다. 정책 지원의 강화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유산균 제품 중에서 젊은 층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창의적인 제품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보건기능이 함유된 유산균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선정되면서 수입 제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유산균시장은 발전 초기 단계로 관련 제도 시스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브랜드 또한 부족하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들은 수입산 식품에 대한 수용도와 신뢰도가 높으므로 한국의 유산균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진출한다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